

# 류현진, 양키스 상대 6이닝 무실점 호투... 시즌 13승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는 류현진이 수염과 함께 부진을 날려버리고 쾌투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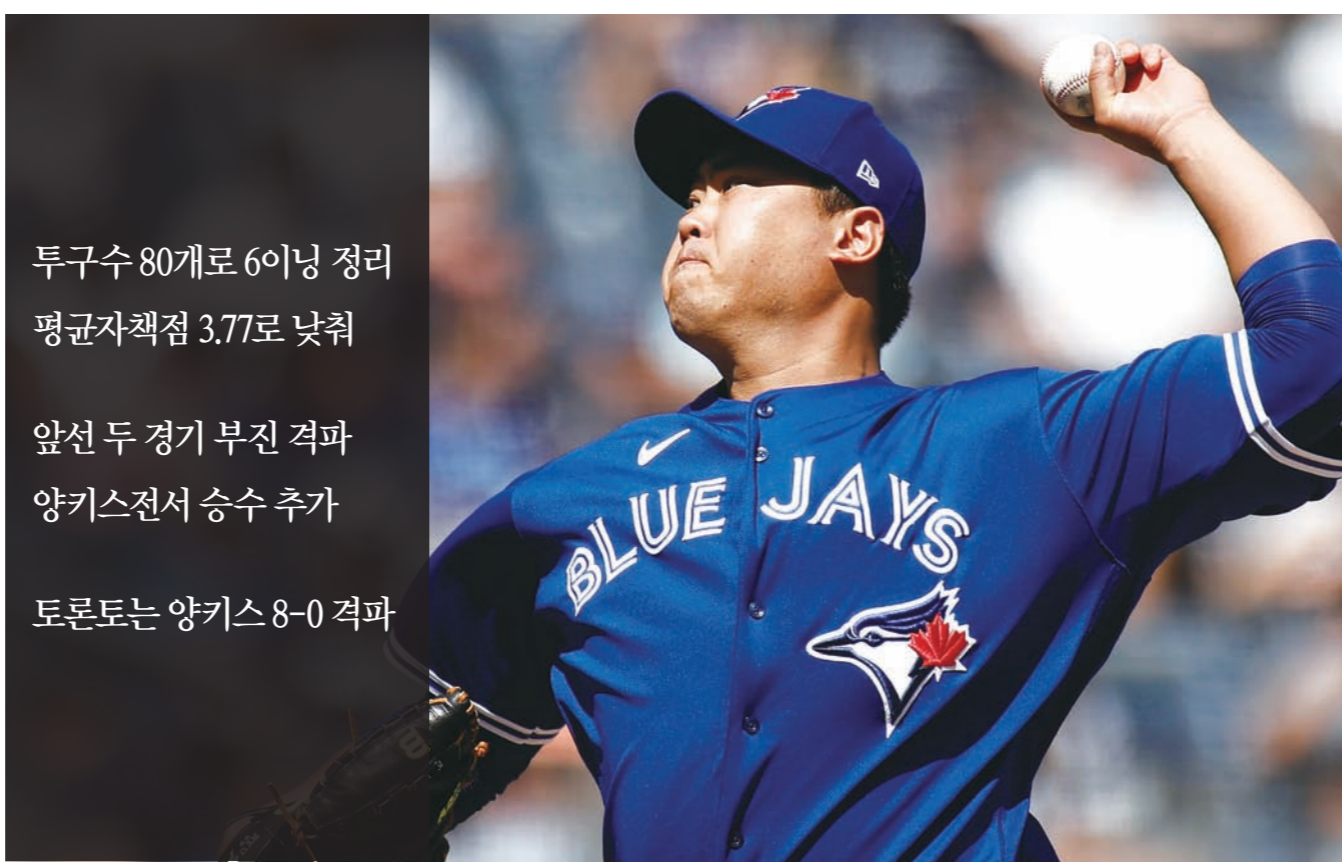
류현진은 7일(한국시간) 양키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MLB 뉴욕 양키스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무실점 쾌투를 선보였다. 군더더기 없는 피칭으로 팀의 8-0 완승을 이끈 류현진은 세 차례 도전 끝에 시즌 13승(8패) 고지를 밟았다.

그동안의 부진을 보란듯이 날린 호투였다. 지난달 27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3%이닝 7실점으로 크게 부진한 류현진은 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만나 5%이닝 3피안타 6탈삼진 3실점으로 쾌투수가 됐다.

이날의 류현진은 앞선 두 경기와 달랐다. 류현진은 6이닝을 투구 수 80개로 정리했다. 탈삼진 6개를 속아내는 동안 사사구는 하나도 헌납하지 않았다. 3.92까지 치솟았던 평균자책점도 3.77로 낮췄다.

2-0 리드를 안고 1회말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DJ 르메이휴와 조이 갈로, 애런 저지를 모두 범타로 정리했다. 2회에는 지안 카를로 스탠튼, 앤서니 리조를 우익수 플라이로, 게리 산체스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3회 1사 후 브렛 가르너에게 중견수 방면 첫 번째 안타를 맞았다. 하지만



투구수 80개로 6이닝 정리  
평균자책점 3.77로 낮춰

앞선 두 경기 부진 격파  
양키스전서 승수 추가

토론토는 양키스 8-0 격파

이후 두 타자에게 모두 내야 땅볼을 이끌며 위기로 이어지진 않았다.

류현진은 한층 빨라진 구속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손쉽게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4회에는 갈로, 스탠튼에게 빠른공과 커터로 삼진을 속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선두타자 리조를 좌전 안타로 내보낸 5

회에도 류현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양한 구속으로 범타를 이끌어냈다. 토론토 야수들은 실책없는 수비로 류현진의 호투에 화답했다.

6회에도 선두타자 지오 우르셀라에게 안타를 맞았으나 곧장 나온 르메이휴의 병살타로 불을 껐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마운드를 떠난 7회초 1점을 추가해 3-0으로 달아났다. 9회에는 대거 5점을 보태 췌기를 막았다.

이날 승리로 74승62패를 기록한 토론토는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1위를 질주 중인 양키스(78승59패)와의 격차를 3경기로 좁혔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 박현수, 아메리카갓탈런트 결승 진출

백석대 태권도 전공자  
15일, 16번째 시즌 결승

충남 천안의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태권도전공 3학년 박현수(22)가 포항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NBC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탈런트' 시즌16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7일 백석대에 따르면 박현수를 비롯, 20여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은 지난해 1월 '이탈리아 갓탈런트'에 출연해 골든 버저를 받으며 결선에 진출했고, 이 영상을 본 '아메리카 갓탈런트' 측의

요청으로 올해 봄 오디션에 참가했다. 박현수는 작년 말 세계태권도연맹 대표 시범단원으로 선발돼 주전으로 활약 중이다.

백석대 관계자는 "박현수는 태권도 발전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이다. 다양한 활동이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 본다. 늘 최선을 다하는 박현수를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아메리카 갓탈런트' 16번째 시즌 결승은 15일(한국시간) 열리며, 우승팀에는 상금 100만달러가 주어진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 심수봉, 데뷔 43년만에 첫 TV단독쇼

한가위에 TV쇼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오는 심수봉이 "데뷔 43년 만에 활짝 피어났다. 이번 공연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KBS '2021 한가위 대기화-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은 세대를 관통하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심수봉의 26년 만의 단독 TV쇼다.

위기의 순간을 함께 견디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국민들에게 격려와 감사, 희망을 전하는 비대면 공연으로, 심수봉의 가수 인생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심수봉은 7일 제작진을 통해 "이런 대형 TV 단독쇼는 데뷔 이후 처음이었고 데뷔 43년 만에 저 심수봉도 활짝 피어났다"며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시작한 공연이었는데 내가 되려 위로를 받았다. 이번 공연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고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존재함을 느낄 수

KBS '한가위 대기화' 출연  
19일 방송... 색다른 공연 준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관객 없이 언택트 공연을 하게 됐지만 대규모 무대와 화려한 LED 영상, 퍼포먼스가 다채롭게 구성됐다. 그동안 TV에 출연해서도 2~3곡의 노래만 불렀는데 이번에는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에서 숨은 명곡까지 20곡이 넘는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흔히들 제 노래는 비탄조의 슬픈 멜로디라고 하더라. 이번 공연을 통해 나에게도 다양한 리듬과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며 지금까지 심수봉에게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반전도 예고했다. 앞서 심수봉은 "대중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내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계속 무대에 서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저는 삶의 고비 고비 어려운 시절마다 음악으로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음악이 없었으면 (지금의 심수봉으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내 음악을 사랑해준 대중 덕분"이라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무대로 첫 비대면 공연을 하게 된 심수봉은 "제 음악은 제 눈에 안 보이는 대중의 비대면 사랑으로 살아 남았기에 사실상 언택트였고 그것에 익숙하다"면서 "특히 비대면 제작 시스템은 매우 흥미로웠다. KBS에서 공연장 가득 관객이 들어찬 것 이상의 생생한 영상으로 무대를 멋지게 연출해줬다"고 말해 감동증을 높였다.

끝으로 심수봉은 "음악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다. 좋은 곡이 나올 수 있게 많은



KBS '2021 한가위 대기화-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포스터

응원 부탁드리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개인 공연으로어나가고 싶다"며 코로나 이후의 계획도 전했다.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은 19일 일요일 오후 8시에 KBS 2TV에서 방송된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 샤이니 민호 '베스트 초이스' 오늘 첫 방송

NOW의 단독 호스트  
매주 수·금요일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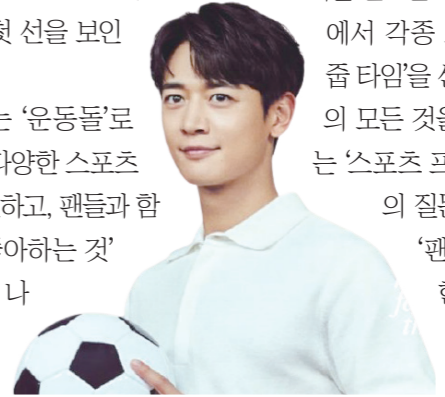
그들 샤이니 민호(사진)가 단독 호스트로 나서는 네이버 NOW 라이브 쇼 '베스트 초이스(BEST CHOICE)'가 8일 오후 10시 첫 선을 보인다.

'베스트 초이스'는 '운동돌'로 잘 알려진 민호가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유쾌하게 전하고, 팬들과 함께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스포츠 토크 버라이어티다. 매

주 수요일과 금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첫 방송은 팬들과 함께 하는 제작 발표회 콘셉트로 진행된다. 민호는 네이버 NOW의 호스트로 데뷔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전하며 팬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민호는 미리 마련한 포토 존에서 각종 포즈를 취하며 '잘 쏠 타임'을 선사하는 한편,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스포츠 프로파일' 코너와, 팬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팬터뷰'를 통해 솔직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 힐링 영주

나를 위한 '실포' 영주 힐링 여행!

영주 힐링 여행

영주 스페셜